제12장 마음을 돈독(敦篤)히 하라

도 입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계획하여 실천하다가 중도에 쉽게 포기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금연이나 공부 또는 살을 빼기 위한 운동 등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일들은 당장 위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져서 차일피일 미루다 포기하게 된다.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다.

이렇게 포기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애초에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게으른 태도가 가세해서, 때로는 섣불리 효과가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자기 몸을 닦아 수양하는 일도 이처럼 당장 다급하다고 여기지 않아 대충하다가 또 미루다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돈독히 하는 문제와 게으름의 병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돈독히 할 것인가? 또 게으름의 병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본 문

[율곡의 풀이]

몸을 닦는 공부는 앞에 다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나, 그래도 중도에 폐지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돈독(敦篤)을 그 다음에 두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처음은 있으나 끝이 있는 것은 드물다."고 하였다. 이른바 돈독(敦篤)은 끝까지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논어]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선비는 그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아서는 안 되니,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어서다. 인(仁)을 자기의 임무(任務)로 삼으니, 그 임무가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뒤에야 그치니, 그 길

이 멀지 아니한가?"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식사를 마치는 사이에도 인(仁)을 떠남이 없다. 급박한 때에도 반드시 여기에 있고, 자빠지는 때에도 반드시 여기에 있다."

[주역]

하늘의 운행은 굳세다. 군자가 이것을 보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쉬지 않는다.

[주역]

군자가 온종일 쉼이 없이 노력하여 저녁에도 두려워하면서 힘쓴다면, 위태롭더라도 허물은 없을 것이다.

[서경]

이윤(伊尹)이 말하였다. "선왕(先王)께서는 어스름 새벽에 일어나 덕을 크게 밝히고,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왕위를 이으신 왕이 새로운 천명을 받으셨으니, 그 덕(德)을 새롭게 해야 하니, 시종 한결같게 하는 것이 곧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몽(正蒙)]

말에는 가르침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 하는 일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으며, 숨 한 번 쉴 때에도 함양(涵養)함이 있고, 눈 한 번 깜박이는 사이에도 보존함이 있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싹은 텄으나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가 영글지 않는 것이 있구나!"

[논어]

재여가 낮잠을 자니 공자가 말하였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으며, 썩은 흙 담은 흙손질할 수 없으니, 재여를 꾸짖어 무엇 하겠느냐."

[율곡의 풀이]

군자의 학문은 성실하고 독실(篤實)해야 할 뿐이다. 임무는 무겁고 도(道)는 멀어서 전진하지 아니하면 후퇴하니, 만약 성실하고 독실하지 않으면 어찌 성취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움을 앞에 두고 얻는 것을 뒤에 둔다." 하였다. 공부가 지극하면 효과가 반드시 오는 것이니, 어찌 미리 기약하겠는가? 지금 사람들은 먼저 얻기부터 하려는 데 병폐가 있다. 미리 기약하였는데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내 싫어하고 권태로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배우는 자의 공통된 병폐이다. 먼 곳에 가는 자가 한 걸음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는 없으니,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점차로 가야 된다. 높은 곳에 오르는 자가 단번에 뛰어오를 수는 없으니,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점차로 올라가야 한다. 진실로 그 길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차례대로 질서 있게 날마다 공정(功程)을 정하여 전진하고 후퇴함이 없으면, 멀다고 못 갈 곳이 없고 높다고 못 오를 곳이 없다.

사람의 심정이 제각기 즐기는 것이 있으니, 배우는 것을 낙(樂)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가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니, 그 가리는 것을 알아서 힘써 제거하여야 한다. 성색(聲色)에 가린 자는 음탕한 노래와 여색(女色)을 멀리하는 데 힘써야 하고, 재화(財貨)와 이익(利益)에 가린 자는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德)을 소중히 여기는 데 힘써야 하며,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것에 가린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는 데 힘써야 한다. 가리는 것이 있으면 그 근본을 끊지 아니함이 없어야 하니, 실지로 노력하여 어렵고 쉬움을 따지지 말고 용감하게 힘껏 나아가며, 괴로움을 참으면서 단연코 물러서지 않으면, 공부가 처음에는 매우 험난하고 막히지만 뒤에는 점차로 조리(條理)가 시원하게 밝혀지며, 처음에는 매우 혼란하지만 뒤에는 점차로 정리되며,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까다롭지만 뒤에는 점차로 통달하여 편리할 것이며, 처음에는 매우 담박하지만 뒤에는 점차로 맛이 있어서, 반드시 배우는 것을 낙(樂)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이 배움에 더할 것이 없으니, 어느 겨를에 외물을 사모(思慕)하여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고 늦추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안자(顏子 : 공자가 아겼던 제자)가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었던 까닭이다.

해 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인간이 율곡선생의 말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율곡선생은 『격몽요결』에서도 이런 마음을 먹을까 무척 우려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얻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익을 멀리하고 덕(德)만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음탕한 노래와 여색'이란 오늘날로 보자면 대중가요를 즐기거나 이상적인 남녀의 짝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바라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지나치지 않다면 무엇이 해로운가?

물론 율곡선생의 이런 말은 오늘날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도덕적인 이상론이라 치부해버리고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말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이 원래 선조에게 올리면서 읽고 실천하기를 권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왕은 물질적 혜택과 성적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여인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여색이나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다. 이러니 율곡선생의 이런 말도 오늘날의 사회 지도층에게 더욱 적용되는 말이라 보면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사람들이 성인군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생각해 볼 문제

1. 공부를 돈독(敦篤)하게 함은 공부를 두텁고 독실하게 하여 시종 한결같게 공부하는 것이다. 자신의 병통을 고치거나 선(善)을 제 몸에 얻고자 할 때, 사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통 작심삼일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요? 율곡 선생의 말을 참고로 하여 말해보시오.

2. 게으른 자는 그 본인이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곁의 사람도 설령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도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프랑스 문학가 카프카도 이르기를, 모든 죄악의 기본은 조바심과 게으름이라고 하였다. 게으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계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이 게으름과 조바심도 앞에서 율곡 선생이 말했다. 게으름과 조바심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해 보세요.

3. 군자 곧 성인이 되는 학문은 율곡 선생의 글에서 살펴볼 때 지극히 도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금욕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욕망과 물질적 삶 곧 자연적 본성을 어기는 일일 수도 있다. 평소에 물질이 풍부하거나 생물적 본성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람에게는 이런 금욕적 태도가 미덕일 수 있다. 그것이 지나치지 않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곡선생의 말은 먹을 빵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생물적 본성을 해결할 토대가 거의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허위의식으로 간주되어 무시될 수 있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엄숙한 도덕주의의 입장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공자의 아끼던 제자 안회는 가난하면서도 이러한 도덕적 생활 곧 성인이 되는 학문을 즐기면서 살았다. 사상적 방향은 다르지만 춘추전국시대의 장자나 통속에 거지처럼 살았다는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도덕수양 방식이 필요 없을까? 아니면 안회의 경우처럼 필요할까? 각자의 입장에서 말해보시오.

한문 익히기

증 자 왈 사 불 가 이 불 홍 의 임 중 이 도 원
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니 任重而道遠이니라.
인 이 위 기 임 불 역 중 호 사 이 후 이 불 역 원 호
仁以爲己任이니 不亦重乎아. 死而後已니 不亦遠乎아(『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曾 : 일찍/曰 : 말하다/士 : 선비/不 : 아니다/可 : 가히/以 : '~으로써'를 뜻하는 어조사/弘 : 넓다/毅 : 굳세다/任 : 맡기다, 맡은 일/重 : 무겁다/而 :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道 : 길/遠 : 멀다/仁 : 어질다, 공자의 핵심 사상/爲 : 하다, 되다/己 : 자기/亦 : 또한/乎 : 어조사/死 : 죽다/後 : 뒤/已 : 그치다

*不可以不~ : ~하지 않으면 안 된다

*以爲 : ~으로 삼다

*不亦 ~乎 : 또한 ~하지 아니한가? 乎는 문장 뒤에 붙어 의문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어조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임중도원(任重道遠) :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는 뜻으로 큰일을 맡아 책임이 무거움

*사이후이(死而後已) :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 둠. 살아 있는 한 그만 두지 않는다는 뜻

해석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선비는 그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아서는 안 되니,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어서다. 인(仁)을 자기의 임무(任務)로 삼으니, 그 임무가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뒤에야 그치니, 그 길이 멀지 아니한가?"라고 하였다.

자 왈 묘 이 불 수 자 유 의 부 수 이 불 실 자 유 의 부
子曰 苗而不秀者 有矣夫며 秀而不實者가 有矣夫인저(『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苗 : 모, 싹/而 : 말을 잇는 접속사/不 : 아니하다/秀 : 꽃피다/者 : ~것/有 : 있다/矣 : 어조사/夫 : 어조사/實 : 열매, 곡식이 익다

*矣夫 : 감탄을 나타내는 어조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묘이불수(苗而不秀) : 자질이 좋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 또는 젊은 사람이 죽음
*수이부실(秀而不實) : 학문이 진보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둠

해석

공자가 말하기를, "싹은 텄으나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가 영글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였다.